

'호국정신 계승' 자매결연 협약

장수교육지원청-이중무함-이중무 장군기념사업회 이중무 장군 호국 기상으로 미래 여는 장수 교육 실현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26일 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해군 잠수함사령부이중무함(함장 정준호), 이중무 장군기념사업회(회장 신인식)와 함께 미래 세대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 및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26일 오전 11시, 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해군잠수함사령부이중무함(함장 정준호), 이중무 장군기념사업회(회장 신인식)와 함께 미래 세대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 및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수군 출신의 역사적 영웅인 이중무 장군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장수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안보 교육과 국방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민·관·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협약식에는 본 행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장수문화원 한병태 원장, 장수교육거버넌스 신병호 위원장,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등 주요 기관장 및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매결연의 의미를 더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힘을 보탤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장수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생들과 학생회회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안보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이중무함 장병들을 위해 위문 방문 및 정서적 지원 활동을 펼침으로써 민·군 간의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중무장군기념사업회는 이중무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학술적 자료를 공유하여 교육의 깊이를 더한다. 장군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각종 문화 행사를 추진함은 물론, 학생과 장병들이 역사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209급 잠수함인 이중무함은 학생들을 위해 잠수함 견학 및 병영 체험, 군 전문가의 특강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협약식은 "이중무 장군의 호국 기상, 미래를 여는 장수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 기관 대표자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연이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교육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번복점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세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견학 일정과 교육 콘텐츠를 확정하고, 지역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현장 점검

장수군은 지난 25일 계북면 어전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참샘골 행복주택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공사 전반을 점검했다.

'참샘골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2024년부터 총사업비 약 58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396㎡, 연면적 1,356㎡ 규모의 지상 4층, 총 18세대 연립주택으로

조성되고 있다.

입주 대상은 농촌유학생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계북면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이번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정주 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사는 올해 7월 준공을 목표



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현장점검 나서

진안군은 하천 및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수질·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26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 차원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가 강조

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군은 하천과 계곡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안전환경국장 주재로 안전재난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을 정자원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불법 평상 설치와 무단 점용 시설 등 하천 내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26일 주식회사 떡갈나무 등 지역 내 15개 기관·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 일자리 지역네트워크 구축

무주군, 15개 기관·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무주군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무주군은 26일 주식회사 떡갈나무 등 지역 내 15개 기관·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여성 인력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주군의 '여성친화 일촌기업'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올해 신규 참여 기업 7곳을 포함해 총 15개 기업이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됐다.

이들 기업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 인턴십 지원과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기업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여성 일자리 참

출 협력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재단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노무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일자리 지원 정책과 기업 현장 적용 방안,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실질적인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무주군은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력해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상담사를 배치해 구직 여성과 기업 간 맞춤형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행 면접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달러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AI 활용 사무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수료생에게 협약 기업 중심의 우선 취업 연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17건 의안 처리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지난 25일, 1일간 제38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청년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김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한국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공공심야아육 지원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의회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탁·의결했다.

이어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공사장 주변과, 노후된 건축물,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에 철자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적극행정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

장수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6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군민 체감도, 우수사례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장수군은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지속가능한 행정혁신 역량을 인정 받았다.

특히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사례가 빛을 발했다. 보건지소와 약국이 인접한 의약분업지역인 산서면에서 약국 운영 공백이 반복되자 보건복지부에 의약분업 예외지정을 적극 건의해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높은 평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 체질 개선 노력도 돋보였다. 군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면책보호제도 도입,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토마토빨나방 예찰·방제 강화

진안군은 26일 최근 외래유입 검역해충인 토마토빨나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예찰 및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토마토빨나방은 잎과 줄기, 열매 등 식물체 전반에 피해를 주는 외래 해충으로, 유충이 조직 내부를 파고들어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다. 특히 초기 방제를 놓칠 경우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해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군은 관내 토마토 재배 30농가, 총 19ha 규모의 재배 면적을 대상으로 방제 약제 2종을 긴급 확보하고, 11개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속히 공급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